#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 | | |
|---|---|---|
| 찬 양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04)<br>시온의 영광이 빛나는(248) | 다 같 이 |
| 통성기도 | Prayer | 다 같 이 |
|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
| 찬 송 | Hymn 50 | 다 같 이 |
| 기 도 | Prayer | 서정길 장로 |
| 교회소식 | Announcement | 인 도 자 |
| 성 경 | 고린도후서1:15-22 | 인 도 자 |
| 설 교 | 아멘 하는 교회 | 조관연 목사 |
| 찬송과봉헌 | Hymn 245 | 다 같 이 |
| 축 도 | Benediction | 조관연 목사 |

■ 다음주기도 : 김상안 집사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 | |
|---|---|
| 주 일 예 배 | 오전 11시 |
| 주일성경공부 | 오후 1시 |
| 수요성경공부 | 매수 오후7시(예정) |
| 가정교회예배 | 매주 금요일(예정) |

##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 | |
|---|---|
| 목 회 사역 | 이진우 목사 |
| 행 정 사역 |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
| 선 교 사역 |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
| 양 육 사역 | Kaitlan Hronek |
| 미디어 사역 | 윤지호 집사 |
| 친 교 사역 |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
| 찬 양 사역 | 이오현 집사 서새롬 |

##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8월 12일 제5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LIBERTY METHODIST CHURCH

#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의 꿈과 야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은 비록 스스로 세운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해도 결코 자신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엡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실까요? 일손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일까요?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최고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후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처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넘치시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저 빈둥거리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고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으며 그 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은 남을 섬길 때 최고의 만족함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론 도무지 만족함과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섬긴 그리스도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 내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요일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직분은 교회의 서열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섬김의 크기입니다. 종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놈이 되려고 하십시오. 직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봉사의 양이며 크기입니다. **고후9: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러분 안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앙의 여정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 땅에 확장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창립1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설교)

##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오늘 낮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관연 목사님(올림피아연합감리교회)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오늘 오후 4시에는 창립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이오현 집사님이 교회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해 주셨습니다.
5. 노용녀 권사님과 서정길 장로님이 강대상을 헌물하셨습니다.
6. 서정길 장로님이 장로임직을 감사하며 영상장비를 헌물하셨습니다.
7. 남영아 권사님 자녀들이 어머니의 임직을 감사하며 방송장비 일부(앰프)를 헌물하셨습니다.
8. 장춘하 성도님이 창립 예배 후 친교식사를 대접합니다.
9. 지난 6일(월요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선교연회 가입절차를 가졌습니다.
10. 이현미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여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 | | |
|---|---|---|
| 십 일 조: | $510.00 | |
| 감사헌금: | $250.00 | |
| 주일헌금: | $20.00 | |
| 특별헌금: | $0.00 | **합 계: $780.00** |

## 중보기도 제목

- 아프간 단기선교팀의 안전한 귀국을 도와주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